

## 칼럼

##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미국의 전성기는 대략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로 본다. 전후의 베이비부머가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기 전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던 시기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에 감히 대항하는 나라도 없던 때였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가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OECD 선진국에 진입한 때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히트는 당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 때문이 아닐까.

건설산업도 주택 200만호 건설이 추진되었던 1990년대를 전후해서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 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산업은 부침을 겪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한 만큼 경기가 계속 좋을 수는 없고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기 순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건설산업은 5년 연속 경기 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며, 부패의 온상이고 복지를 저해하는 산업으로까지 비하되고 있다.

많은 건설인들이 20년 전을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어 있다. 그럴 만도 한 상황이지만 그러고만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긴박하다. 시장의 양적 축소와 질적 악화를 막는 동시에 산업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얼마 전 한 매체의 설문에 따르면 건설인들이 보는 건설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보다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여 준수한 얼굴이 인정받

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화장 탓이라는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경계한다. 칼 뭇 곳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랑과 이해는 모든 해법의 출발점이다.

미래에서 보았을 때 2013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제한된 재원을 놓고 벌인 복지와의 싸움에서 보기 좋게 나가떨어졌다. 무슨 사기사건, 무슨 배임사건, 무슨 뇌물사건에서건 건설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분리발주, 주계약자제도 등 업역간의 갈등은 줄어드는 시장에서 이진투구의 양상으로 번졌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반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단언컨대 2013년이 행복했던 한 해로 회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출발선상에 선 2014년은 미래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 술에 배부를 것은 아니지만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로 기억될 수는 있지 않을까. 10년을 내다보는 자정 노력으로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상생을 바탕으로 업역간 존중과 협조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국회에서는 건설산업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건설적 복지에 재정 지출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건설산업은 민간 투자의 확대에 화답하며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오늘이 미래를 잉태한다. 20년 뒤 후배 건설인들이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며 한 해를 보내야겠다. '응답하라 2014'의 주인공은 우리이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우리의 아직 남은 선택이다. CERIK